

생애 초기 사회도덕적 추론: 영아의 내집단 원리에 대한 민감성

진 경 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내집단 선호 현상에 대한 발달적 근원은 무엇일까? 여러 관점 중에서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화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내집단 선호는 생애 초기 나타나는 몇 가지 추상적인 사회 도덕적 원리 중 내집단 원리를 반영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내집단 선호의 발달 기제에 대한 기존 관점을 요약하고 이 중 진화적 관점을 지지하는 영아의 내집단 원리의 민감성을 밝힌 최근 주요 연구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영아 인지, 사회도덕적 추론, 도덕성, 내집단 선호, 내집단 원리

[†] 교신저자 : 진경선, 서울 성북구 돈암동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kjin@sungshin.ac.kr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현상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 즉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선호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인 및 만 4세 이상 아동들도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선호하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친사회적으로 대한다(e.g., Balliet, Wu, & De Dreu, 2014; Fehr, Bernhard, & Rockenbach, 2008; Hewstone, Rubin, & Willis, 2002; Levine, Prosser, Evans, & Reicher, 2005; Renno & Shutts, 2015).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현상이 최소 집단 과제(minimal-group paradigm), 즉 실험 상황에서 임의적인 단서로 소속 집단이 규정된 상황에서조차도 나타난다는 놀라운 현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e.g., Brewer, 1979; Dunham, Baron, & Carey, 2011; Patterson & Bigler, 2006; Plötner, Over, Carpenter, & Tomasello, 2015; Rhodes, 2012;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예를 들어, 최소 집단 과제를 사용한 가장 전통적인 연구로 알려진 Tajfel과 동료들(1971)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수십여 개의 점을 스크린 상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후, 몇 개의 점을 보았는지 적게 하였다. 이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이 과제에서 1) 어떤 사람들은 점의 개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2)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각 참가자들이 이 중 어떠한 집단에 속하는지 과제에서 실제 수행과는 관계없이 무선적으로 알려주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일정 양의 자원을 내집단과 외집단에 할당하는 과제에서 내집단에게 외집단보다 더 많은 양의 자원을 할당하였다. 이와 같이 최소 집단 과제에서

집단을 나타내는 단서들은 무선적이거나(예, 연구 참가자가 동전을 던져서 앞, 뒤 중 어떤 것이 나왔는지 여부로 집단을 결정), 임의적이며(예, 참가자에게 빨간색 혹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게 한 후 티셔츠 색에 따라 집단을 분류), 집단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집단끼리 상호작용의 기회 또한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다(Balliet et al., 2014).

이와 같이 단순한 최소 집단 조작만으로도 내집단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은 내집단 선호와 연관된 다양한 부정적인 사회 현상들(예, 차별, 고정관념, 집단이기주의, 족벌주의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Dovidio와 동료들(1997)은 성인 참가자가 기존에 한 최소 집단에 할당된 이후, 새롭게 주어진 집단 단서를 통하여 집단을 쉽게 재조직(re-categorization)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내집단 선호 현상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왜 인간은 이처럼 내집단 선호를 보이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내집단 선호 발달 기제에 대한 이론과 관련 연구를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내집단 선호의 발달 기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요약하고자 한다. 둘째,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내집단 선호 발달에 대한 여러 이론적 관점 중 최근 10여 년 간 도덕성 발달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진화적 관점을 지지하는 영아 연구를 요약하고자 한다.

내집단 선호의 발달 기제

내집단 선호 현상 및 그 발달 기제에 대해

서 현재까지 크게 세 종류의 관점이 제기되어 왔다(Jin & Baillargeon, 2017). 이 세 가지 입장은 내집단 선호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수준의 분석을 제공하며 이 현상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동기적 관점(Motivational Accounts)

한 이론적 입장에서는 내집단 선호 현상을 동기에 따른 효과로 간주한다. 동기적 관점에 속한 관점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자아존중감 관점(self-esteem accounts)에서는 내집단 선호 현상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이미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제안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Hogg, 2003; Tajfel & Turner, 2004). 혹은 이미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관을 자신의 집단에게까지 일반화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관을 보다 잘 유지하도록 동기화된다고 본다(Gramzow & Gaertner, 2005).

둘째, 공감 관점(empathy accounts)에서는 내집단 선호 현상은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다고 여기는 타인에게 더 공감하게 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감 관점에 따르면 개인들은 외집단 구성원의 고통보다는 내집단 구성원의 고통에 보다 더 많이 공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집단 구성원을 더 도우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Cikara, Bruneau, & Saxe, 2011; Molenberghs, 2013).

규범적 관점(Normative Accounts)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내집단 선호를 학습된 규범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단 구성원들을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으로 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사회적 관점(social accounts)에서는 아동이 양육 및 또래 경험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내집단 선호라는 사회적 규범을 발견해내고 이를 내재화하여 이 규범을 따르게 된다고 본다(Killen & Cooley, 2014; Killen, Rutland, Abrams, Mulvey, & Hitti, 2013).

반면, 인지적 관점(cognitive accounts)은 아동이 내집단 선호를 사회 규범으로 획득한다고 보는 점은 사회적 관점과 유사하지만, 그 획득 과정에 있어 사회적 경험보다는 아동들의 유목화(categorization) 능력, 사람이나 집단의 특정한 특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본질적 관점(essentialism), 혹은 기타 인지적인 처리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즉, 인지적 관점은 아동들이 인지 발달을 통해 개개인을 사회 집단으로 분류하여 지각하고, 각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공통적 특질이나 행동 특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추론(inference)하는 능력의 발달에 주목하며, 이러한 인지 과정이 내집단 선호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Dunham, Baron, & Carey, 2011; Hirschfeld, 2001).

진화적 관점(Evolutionary Accounts)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내집단 선호를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얻은 적응 기제로 본다. 이 중, 첫째, 간접적 상호호혜성 관점(indirect-reciprocity accounts)에서는 내집단 선호 현상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조상이 소집단 안에서 생존해나가면서 집단 내 타인들과의 신뢰 구축의 책략으로써 진화되었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내집단 선호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언젠가는 자신이 집단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 역시 내집단 구성원을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으로 대하는 암묵적인 책략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내집단에게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태도 및 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보유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개인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도움을 집단 내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Ballet et al., 2014; Yamagishi & Mifune, 2009). 이러한 평판 관리 기제를 통하여 집단 내 구성원들이 대부분 좋은 협력자로 존재하므로 집단 및 그 구성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사회도덕적 기대 관점(sociomoral expectation accounts)에서는 인간은 진화의 결과로 몇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내집단 원리(ingroup principle), 즉, 개인은 집단의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리가 인간의 기초 사회도덕적 원리 중 하나라고 본다(e.g. Baillargeon et al., 2015; Graham et al., 2013). 만약 내집단 원리가 인간이 타고 태어난 기초 사회도덕적 원리라면 이 원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내집단 선호 현상의 발달적 근원에 대한 설명을 상당 부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의무를 인간의 도덕성의 핵심 기본 요소로 제안한 바 있다. 예를

들어, Shweder와 동료들(1997)의 세 가지 도덕성("The big 3 morality") 중 공동체 윤리(ethic of community), Brewer(1999)의 내집단 사랑 (ingroup love), Cosmides와 Tooby(1997)의 집단 협력을 위한 인지적 적응(cognitive adaptations for group cooperation), Rai와 Fiske(2011)의 공동체 관계의 결속 동기(unity motive in communal-sharing relationships), Graham과 동료들(2013)의 도덕적 기초 이론의 내집단 충성(moral foundation of loyalty), 그리고 Baillargeon과 동료들(2015)의 내집단 지지 원리(principle of ingroup support)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인류의 조상들이 생존에 있어서 협력이 필수적인 사냥꾼과 채집꾼의 소집단에서 생존해 나가면서 내집단 원리와 같은 몇 가지의 사회도덕적 원리들이 진화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천적 사회도덕적 원리들은 문화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각 문화 및 개인별로 개별 원리들을 더 강조하거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도덕성과 관련된 문화차와 개인차를 이끌게 된다. 예컨대, Graham과 동료들(2013)은 내집단 충성(ingroup loyalty)은 공정성(fairness)이나 위해 금지(no harm)와 같이 어떤 문화권에서나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기초 원리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각 문화에 따라서 특정 원리를 더 강조하거나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고 보았다.

위의 세 가지 이론적 입장은 내집단 선호의 발달에 있어 상호보완적 설명을 제공하지만 내집단 선호가 발달 시기 중 언제 최초로 나타나는지, 즉 내집단 선호의 발달적 근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예측을 제시한다. 동기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은 내집단 선호 및 그 발달의 기제에 대하여 매우 다른 이론적 입장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내집단 선

호에 관한 기대에 대한 민감성은 아동 스스로의, 그리고 타인의 자아관 및 공감 여부를 이해하거나,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얻거나, 혹은 일정한 인지적 발달을 이룬 이후, 즉 최소한 학령 전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진화적 관점의 경우, 인간이 여러 기본적인 도덕 원리 중 하나로 내집단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므로 생애 초기부터 내집단 지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진화적 관점은 내집단 선호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어린 영아기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영아의 내집단 선호에 대한 이해

최근 약 10여년 동안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영아의 사회도덕적 민감성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해 왔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는 영아들도 공정성(e.g., Geraci & Surian, 2011; Schmidt & Sommerville, 2011; Sloane, Baillargeon, & Premack, 2012)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바를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몇 가지 사회도덕적 기대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진화적 관점의 예측과 일관된 결과로 해석된다(Baillargeon et al., 20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은 내집단을 지지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내집단 원리(ingroup principle) 역시 이러한 기초 사회도덕적 원리의 후보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Baillargeon et al., 2015; Brewer, 1999; Cosmides & Tooby, 1997; Graham et al., 2013; Shweder et al., 2013; Rai & Fiske, 2011).

내집단 원리(ingroup principle)는 크게 내집

단 충성(ingroup loyalty)와 내집단 지지(ingroup support)의 두 가지 하위 원리로 나뉘며 (Baillargeon et al., 2015), 각각의 하위 원리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기대를 이끌어낸다. 내집단 충성의 경우, 내집단 그리고 외집단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 1) 개인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선호하고, 내집단의 선호 및 의견에 자신을 의견을 맞추며(align), 2) 자원 분배와 같은 상황에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유리하게 대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내집단 지지의 경우, 내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은 1) 위협이나 고통에 처한 내집단 구성원을 돌보거나 위로하고, 2) 도움이 필요한 내집단 구성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그렇다면 영아들은 내집단 원리, 즉 내집단 충성과 내집단 지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까? 영아들은 스스로 내집단 원리에 따라 행동하며, 또 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할까? 아래에서는 영아의 내집단 원리에 대한 민감성을 밝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들은 내집단 충성(ingroup loyalty)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아들은 자신의 내집단을 선호하고 내집단의 의견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키는가?

Kinzler, Dupoux, 그리고 Spelke(2007)는 영아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를 외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보다 더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국어 화자가 제공하는 장난감을 외국어 화자가 제공하는 장난감보다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 대상은

단일 언어에 노출된 10개월 영아들로, 모국어 가 영어인 미국 보스턴 지역의 영아들과 모국어 가 프랑스어인 프랑스 파리 지역의 영아들이었다. 영아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총 4회의 실험 시행에 참여하였다. 각 실험 시행은 각기 발화 단계(speech phase)와 장난감 제공 단계(toy-offering phase)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발화 단계에서 영아들은 한 여성이 화면에 등장하여 영아 지향어(infant-directed speech)의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여성이 화면에 등장하여 영아 지향어의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번갈아가며 관찰하였다. 장난감 제공 단계에서는 두 여성이 동시에 화면 양 옆으로 등장하였고, 둘 다 아무런 말이나 소리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동일한 장난감(예, 개구리)을 들고 있었다. 그 후 동시에 두 여성들은 마치 화면 밖 영아를 향해 장난감을 건네주듯 장난감을 든 손을 더 이상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화면 아래 방향으로 내렸다. 이 때, 모니터 상 두 여성의 정지된 화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실제 탁자 위에 실제 장난감(예, 개구리)이 제시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모두에서 영아들은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제공한 장난감을 외국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제공한 장난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선택하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각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동일한 장난감을 제공하였지만, 이후 연구에서 두 화자가 각기 다른 종류의 장난감이나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에도 영아들이 자신의 선호를 모국어 화자의 의견에 일치시킨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예, Kinzler, Dupoux, & Spelke, 2012; Shutts, Kinzler, McKee, & Spelke, 2009). 예를 들어, Shutts와 동료들(2009)의 연구

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12개월 영아들은 2회의 친숙화 시행, 그리고 1회의 실험 시행에 참여하였다. 1회의 친숙화 시행에서 영아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그릇에 담긴 특정 음식을 먹으며(예, 보라색 그릇에 담긴 자두 맛 푸레) 그 음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친숙화 시행에서 영아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다른 음식(예, 초록색 그릇에 담긴 사과 푸레)을 먹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이후 실험 시행에서 각 화자는 화면 밖 영아를 향해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들고 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넸고, 영상이 정지된 후, 두 여성의 정지된 화면 하단에 위치한 실제 테이블에 실제 음식이 제시되었다. 이때 12개월 영아들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가 제공한 음식을 외국어 화자가 제공한 음식보다 더 유의미하게 많이 선택하였다.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들은 10개월에서 12개월의 영아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를 외국어 화자보다 선호하며, 장난감이나 음식 등을 선택할 때에 모국어 화자의 선택 혹은 의견에 일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아들이 단순히 모국어 화자가 영아들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숙성에 의존하여 친숙한 화자가 제공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Baillargeon et al., 2015), 이보다 나아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여성을 내집단 혹은 외집단으로 각기 인식하여 내집단의 의견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키는 내집단 충성을 보여주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은 모두 영아가 직접 사회 상호작용의 당사자로 참여한 제1자(first-party) 상황

이므로 이 두 가능성 중 어떠한 가능성이 맞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연구들은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생후 1년 내외의 영아들도 타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그들의 행동을 얼마나 참조할 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원을 분배할 때 내집단 선호를 보일 것을 기대하는가?

영아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알아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영아들도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Geraci & Surian, 2011; Schmidt & Sommerville, 2011; Sloane et al., 2012).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영아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기대 위반 과제(violation-of-expectation paradigm)를 주로 사용한다. 기대 위반 과제는 영아들은 보통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장면을 기대와 맞는 장면보다 더 오래보는 경향성에 착안하여 영아들에게 1) 연구 가설 상 영아의 기대와 일치하는 장면과 2)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장면 주고, 각 장면에서의 영아들의 응시 시간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다.

기대 위반 과제를 사용한 Sloane과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19개월 영아들은 분배자인 성인 실험자가 두 개의 물체(예, 두 개의 쿠키)를 두 마리의 기린 손인형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 때 분배자는 두 개의 물체를 두 마리의 기린에게 한 개씩 각각 공정하게 분배하기도 하고(공평 장면), 혹은 한 마리의 기린에게만 두 개의 쿠키를 주었지만 다른 기린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불공평 장면). 영아들은 공평 장면보다 불공평 장면을 더 유의하게 오랫동안 바라보았으며, 이는 19개월 영아들도 타인이 다른 타인

들에게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약 분배자가 수혜자 둘 중 한 명과 같은 집단에 속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이 때 영아들은 분배자가 내집단 수혜자에게 보다 유리한 분배를 할 것을 기대할까? 혹은 분배자가 집단 소속과 상관없이 공평한 분배를 할 것을 기대할까?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한 최근 연구(Bian, Sloane, & Baillargeon, 2018)는 위에 언급된 기존 연구(Sloane et al., 2012)의 절차를 수정하여 19개월 영아들이 상황에 따라, 특히 주어진 자원의 양에 따라 내집단 원리와 공정성 원리 중 어떠한 원리를 더 우선시하는 지 알아보았다. 영아들은 1회의 실험 시행에서 무대 위 손인형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분배자는 원숭이 혹은 기린(역균형화되었음)이었고, 수혜자는 원숭이와 기린이었다. 예를 들어, 분배자가 원숭이일 경우, 분배자와 원숭이 수혜자는 같은 집단에 속하는 반면, 분배자와 기린 수혜자는 다른 집단에 속하게 된다. 시행이 시작되면 기린 수혜자가 무대의 뒷벽의 왼쪽 혹은 오른쪽 문을 통해 등장한 후, 좌우로 2회 몸을 흔들며 움직였다. 이 후, 원숭이 수혜자가 다른 문을 통해 등장하고, 박수를 2회 쳤다. 이 때, 원숭이, 기린 수혜자 앞에는 각기 접시가 놓여있었다. 이후 무대 오른쪽 창문을 통하여 분배자(예, 원숭이)가 자신의 접시 위에 두 개(2-아이템 조건) 혹은 세 개(3-아이템 조건)의 동일한 쿠키를 들고 등장한 후, 수혜자들을 향해 "I have cookies!(나는 쿠키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수혜자들은 "Yay! Yay!(우와! 우와!)"라고 각기 다른 목소리로 외쳤다. 이 후 분배자는 두 조건 모두에서 두 개의 아이터를 다음 셋 중 하나의 경우로

분배하였다. 1) 분배자는 두 개의 아이টে를 내 집단 그리고 외집단 수혜자에게 각각 하나씩 주거나(공평 장면), 2) 두 개의 아이টে를 모두 내집단 수혜자에게만 주거나(내집단-선호 장면), 혹은 3) 두 개의 아이টে를 모두 외집단 수혜자에게만 주었다(외집단 선호 장면). 분배를 마친 분배자는 무대를 떠났고(3-아이টে 조건에서는 분배 후 남은 세 번째 쿠키를 가지고 무대를 떠났다), 수혜자들은 자신의 접시를 바라보며 동작을 멈추었으며, 이 정지 장면부터 영아들의 응시 시간이 종속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 2-아이টে 조건의 경우, 영아들은 공평 장면 혹은 외집단 선호 장면을 내집단 선호 장면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는 자원의 개수가 단 두 개일 때, 즉 자원이 분배자의 집단에게만 충분한 양일 경우에는 영아들은 분배자가 이 자원을 하나 이상 외집단에게 나누어주는 장면을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3-아이টে 조건의 경우, 영아들은 내집단-선호 혹은 외집단-선호 장면을 공평 장면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는 자원의 개수가 세 개일 때, 즉 자원이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충분한 양일 경우에는 영아들은 분배자가 수혜자의 집단에 관계없이 한 수혜자에게만 두 개의 자원을 나누어 주고, 다른 수혜자에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 장면을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이 연구 결과는 19개월의 영아들도 자원의 양이 내집단과 외집단에게 모두 충분할 때에는 공정성 원리에 따라 분배자가 내집단과 외집단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를 기대하지만, 자원의 양이 단지 내집단에게만 충분할 정도로 한정되었을 때에는 내집단

충성 원리에 따라 분배자가 그 자원을 외집단 구성원에게는 나누어주지 않고 집단 내에서 유지시키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들도 내집단 충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자원의 양과 같은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내집단 충성과 공정성의 원리 중 어떠한 원리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교한 사회도덕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아들은 내집단 지지(ingroup support)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아들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한 내집단 구성원을 위로할 것을 기대하는가?

영아들의 타인의 위로에 대한 기대 연구는 영아들의 최초의 내집단 중 하나인 양육자-아기의 상호작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예를 들어, Johnson과 동료들(Johnson, Dweck, & Chen, 2007; Johnson et al., 2010)은 영아들이 성인이 울고 있는 아기에게 다가갈 것을 기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한 실험에서 13개월 영아들은 먼저 큰 타원(“어른”)과 작은 타원(“아기”)의 상호작용을 묘사한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습관화되었다. 습관화 시행에서 어른과 아기는 언덕 아래에 함께 서있었으나 어른은 곧 아기를 떠나 언덕을 올라갔다. 어른이 언덕 중간까지 오르면 아기는 울기 시작하였다. 이 습관화 장면을 보고 난 후, 영아들은 두 실험 장면을 보았다. 각각의 실험 장면은 어른이 언덕 중간에서 있고, 아기가 우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 때 어른은 울고 있는 아기에게 반응을 보여 돌아가거나(반응 장면) 혹은 아기의 울음을 무시하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비반응 장면). 이 실험을 마친 후, 낯선 상

황(Strange Situation Procedure;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을 통해 영아들의 애착 유형이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13개월 영아들은 반응 장면과 비반응 장면을 동일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애착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안정 애착 유형의 영아들은 비반응 장면을 반응 장면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으나, 불안정 애착 유형의 영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반대 패턴, 즉 반응 장면을 비반응 장면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Johnson과 동료들은(2007, 2010)은 습관화 시행에서 어른과 아기의 분리 에피소드가 영아들이 자신의 내부 작동 모델(Bowlby, 1961)을 적용하도록 이끌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영아들은 자신과 자신의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모델에 의거하여 다른 성인이 우는 아기에게 반응할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안정 애착 유형의 영아들은 실험 장면에서 우는 아기에게 성인이 다가가기 기대한 반면, 불안정 애착 유형의 영아들은 그러한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Johnson et al., 2007, 2010), 즉 불안정 애착 영아들은 성인이 우는 아기를 위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할 때, 영아들이 일반적으로 내집단의 위로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적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첫째, 불안정 애착 영아들은 비반응 장면을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여겨서 이 장면을 보는 것을 회피하고 이 장면에 대해 충분히 인지적 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Dykas & Cassidy, 2011). 즉, 불안

정 애착 영아들도 어른이 우는 아기에게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반응 장면을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은 상황으로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반응 장면(특히, 분리 에피소드가 이미 습관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된 이후)을 고통스럽게 여겨 이 장면에서 눈을 들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존의 영아의 물리적 추론 연구(Kotovskiy & Baillargeon, 1994, 1998)에 따르면 민감하지 않은(insensitive) 양육자의 10개월 영아들은 민감한(sensitive) 양육자의 영아들에 비하여 애니메이션 상 추상적인 도형들의 움직임으로 표현된 물리적 추론 과제에서 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는 Johnson과 동료들(2007, 2010)의 연구의 불안정 애착 영아들이 애니메이션 상 추상적인 도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해에 어려움을 보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한 최근 연구(Jin, Houston, Baillargeon, Groh, & Rosiman, 2018)에서는 12개월, 8개월, 그리고 4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람이 비디오에 등장하며, 성인과 아기의 분리 에피소드가 없어 부정적인 정서 유도가 적은 상황을 제시하여 영아들이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이 울고 있는 아기에게 다가가 위로할 것을 기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한 실험에서 12개월 영아들은 울음 조건 혹은 웃음 조건으로 할당되었고, 2회의 친숙화 시행과 2회의 실험 시행에 참여하였다. 울음 조건의 친숙화 시행에서 먼저 영아들은 한 여성이 화면 왼쪽의 테이블 위에 놓인 빨랫감을 접어 정리하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유모차가 놓여있었고, 여성과 유모차 사이에는 빨랫감이 더 걸려 있는 의자가 놓여있었다. 2회의 친숙화 시행에서 영아들은

각각 다른 여성이 빨래를 접는 장면을 보았다.

이후 2회의 실험 시행은 친숙화 시행에서 보았던 여성 중 한 명이 테이블 위의 빨랫감을 접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이 빨랫감을 정리하는 도중, 유모차의 아기가 울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한 여성은 접고 있던 빨랫감을 내려놓고 유모차로 다가가 유모차를 부드럽게 흔들며 울고 있는 아기를 위로하였고(위로 장면), 다른 여성은 접고 있던 빨랫감을 내려놓고 의자로 다가가 다른 빨랫감을 주울 뿐 울고 있는 아기를 무시하였다(무시 장면). 웃음 조건의 영아들은 동일한 장면을 보았으나, 다만 실험 시행에서 아기의 울음소리 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

실험 결과, 울음 조건의 12개월 영아들은 무시 장면을 위로 장면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본 반면, 웃음 조건의 영아들은 두 장면을 동일하게 바라보았다. 이는 12개월 영아들도 일반적으로 울고 있는 아기에게 양육자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가 위로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Jin과 동료들(2018)은 유사한 절차 혹은 아기의 응시 시간을 측정하는 대신 아기가 더 보고 싶은 장면의 화면을 터치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절차(infant-triggered-video paradigm)을 통해 4개월 그리고 8개월 영아들에게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 즉 비반응 장면을 반응 장면보다 더 오래 보거나 혹은 더 보기를 원하여 선택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후 4개월의 매우 어린 영아들조차도 울고 있는 아기에게 양육자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가 위로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이 생애 초기부터 내집단 지지에 대한 기대, 즉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내집단 구성원에게 위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을 시사한다.

물론 위의 연구(Jin et al., 2018)에서는 성인 여성과 유모차 속의 아기의 관계를 내집단으로 명확히 조작한 것은 아니므로 영아들이 이 여성을 반드시 아기의 내집단 구성원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은 이러한 결과가 내집단 구성원 모두가 아닌 양육자와 영아 사이에서의 기대에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연구의 결과는 내집단 원리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특히 약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위해 금지(no harm)원리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Jin et al., 2018). 그러나 또 다른 최근 연구(Spoke & Spelke, 2017)는 영아들이 같은 양육자에게 울음에 대한 위로를 제공받는 아기들은 서로 같은 집단에 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영아들은 울고 있는 아기에 위로 행동은 같은 사회적 집단 안에 일어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자와 아기가 아닌 내집단 관계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음 절에서는 등장인물의 집단을 최소 집단 과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영아의 내집단 원리에 대한 민감성을 알아본 연구(Jin & Baillargeon, 2017)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아들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내집단 구성원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도움 행동에 대한 기존의 영유아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영아들은 개인의 사회 집단이 특별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그들이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기대를 가

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Hamlin, Wynn, 그리고 Bloom(2007)의 연구에서 6개월과 10개월 영아들은 눈이 달린 서로 다른 색상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도형 캐릭터들이 각각 등반가(climber), 도움자(helper), 방해자(hinderer)의 역할로 가파른 언덕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실제 무대 장면에서 습관화되었다. 습관화 시행에서 영아들은 도움 장면과 방해 장면을 교대로 보았다. 도움 장면에서는 등반가가 언덕의 중간 평지까지는 성공적으로 오르고 가볍게 흔들며 춤을 추지만, 그 후 꼭대기까지는 성공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등반가가 세 번째 시도에도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를 하면 도움자가 장면에 나타나 언덕 아래에서부터 올라와 등반가 뒤에서 등반가를 두 차례 쳐서 언덕 꼭대기로 밀어 올려 주었다. 이후 도움자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 장면을 떠나고, 등반가는 언덕 꼭대기에서 또 다시 가볍게 춤을 춘 후, 시행이 끝날 때까지 꼭대기에 정지해 있었다. 방해 장면은 도움 장면과 비슷하지만 등반가가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 방해자는 언덕 꼭대기 쪽으로 등장하여 등반가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도록 아래로 두 차례 쳐서 등반가를 언덕 아래로 밀어버렸다. 이후 방해자는 언덕 꼭대기로 돌아가서 장면을 떠나고, 등반가는 언덕 아래에서 시행이 끝날 때까지 정지해 있었다. 만약 이때 영아들이 도움 행동을 기대하였다면 도움 장면보다 방해 장면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4.5개월에서 19개월까지 다양한 연령의 영아들은 도움 장면과 방해 장면을 본 이후에는 도움자를 방해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나, 도움 장면과 방해 장면을 볼 때에는 두 장면을 동일한 길이로 바라보았다(Hamlin, 2014; Hamlin, Wynn,

& Bloom, 2007; Hamlin, Wynn, Bloom, & Mahajan, 2011). 이는 영아들이 개인의 도움 행동과 방해 행동을 보고 난 후, 이러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내릴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보기 이전에는 소속 집단이 특정되지 않은 개인들의 도움 행동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개인들이 서로 같은 집단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3세 이상의 아동들은 내 집단 지지에 대한 기대를 보인다(Olson & Spelke, 2008; Rhodes, 2012; Rhodes & Chalik, 2013; Richter, Over, & Dunham, 2016). 예를 들어, Rhodes(2012)의 연구에서는 한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을 때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들으면 3세 이상의 아동들은 그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최소 집단에 속할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반대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안아주거나 쿠키를 나누어 주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들은 경우, 6세 이상의 아동들은 그 두 인물이 서로 같은 최소 집단에 속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셋째, 영아들이 실제 사회적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제1자(first-party) 상황 연구를 살펴보면 만 1세 영아들은 실험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도와주는 등의 도움 행동을 보인다(Warneken & Tomasello, 2006). 이러한 영아들의 도움 행동은 그 도움의 대상이 이전에 영아들과 상호호혜적 놀이(예: 공을 서로 주고 받는 게임)를 하였거나(Barragan & Dweck, 2014), 이전에 영아들의 행동을 모방하였거나(Carpenter, Uebel, & Tomasello, 2013), 혹은 이전에 영아와 같은 리듬에 맞추어 동시에 몸을 움직였을 때(Cirelli, Einarson, & Trainor, 2014)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영아들도 내집단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연구(Jin & Baillargeon, 2017)는 이러한 예측을 검증하여 17개월 영아들도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도움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영아들은 기대 위반 과제에서 세 명의 여성(E1(실험자1), E2, E3)이 인형극 무대의 각각 세 면의 창문에 등장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먼저 3회의 명명(labeling)시행에서 여성들이 무의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소속 집단을 밝히는 장면을 바라보았다(예, "I'm a bem! (나는 뱀이야!)", "I'm a bem, too! (나도 뱀이야!)", "I'm a tig! (나는 티그야!)"). 이후 실험 시행에서 E3은 장면을 떠나고, 영아들은 E1과 E2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다. E2가 지켜보는 중에 E1은 자신의 창문 옆에 놓인 상자 안에 놓인 다양한 색상의 블록을 크기가 큰 순서대로 꺼내어 자신 앞에 놓인 받침대에 하나씩 쌓아서 타워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E1의 마지막 블록이 무대 바닥 멀리 E2 가까이 떨어져 있어 E1은 잡을 수가 없었다. E1이 그 마지막 블록을 잡으려고 팔을 뻗어 노력하는 중에 뱀이 울렸고, E1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무대를 떠났다. 이 때, E2는 E1의 마지막 블록을 들어 올려서 이를 E1의 상자 안에 넣어주어 E1이 돌아왔을 때 타워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도움 장면), 혹은 마지막 블록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E2의 손이 닿지 않는 제자리에 두었다(무시 장면).

실험 결과, E1과 E2가 서로 동일한 최소 집단에 속할 경우에는 영아들은 도움 장면보다 무시 장면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나

E1과 E2가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거나 혹은 그들의 집단에 대한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실험자들이 명명 시행에서 "I'm a bem!(나는 뱀이야!)" 대신 "I saw a bem!(나는 뱀을 보았어!)"과 같이 말하여 실험자들의 문장이 집단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주지 않을 때)에는 영아들은 두 장면을 동일하게 바라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17개월 영아들도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내집단 구성원을 도와주기를 기대하지만, 외집단 상호작용 혹은 집단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도움 행동을 선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17개월 영아들도 내집단 구성원에게 친사회적으로 대할 것을 기대하는 내집단 원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 선호에 대한 진화적 관점을 지지한다.

요약 및 제언

이 논문에서 소개한 최근 연구들은 인간의 내집단 선호에 대한 발달이 영아기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내집단 선호 및 이에 대한 기대가 진화된 기제로서의 인간의 직관적인 도덕적 추론 능력 중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따라서 서론에 소개한 내집단 선호의 발달 기제에 대한 여러 이론 중 진화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내집단 선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째, 내집단 선호 발달의 진화적 관점 그리고 생득주의적 관점을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생후 1년 이

내의 영아기에 대한 추후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Jin과 동료들(2018)의 경우 4개월 영아들도 울고 있는 아기에게 성인 여성이 위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지만, 이외 많은 영아의 내집단 지지에 대한 기대 연구는 생후 1년 이후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영아기부터 내집단 선호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내집단 선호 현상이 상당히 뿌리 깊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집단 선호의 발달에 있어 사회적 혹은 인지적 발달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내집단 선호 현상의 발달에 있어 영아가 보이는 인간의 사회도덕적 기초와 향후 사회 및 인지 발달은 실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사회도덕적 기대가 발달을 거치며 이후 아동기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김혜리 외, 2013), 특히 어떻게 사회적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아동들의 도덕성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및 가정의 환경(이미영, 장은진, 2015), 혹은 서로 다른 훈육 방식들이 초기 사회도덕적 기대들을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내집단 선호에 대한 기대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들은 타인이 외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도 혹은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Jin & Baillargeon, 2017), 이러한 생애 초기 기대와는 달리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차별, 그리고 따돌림과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발달심리학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이다.

셋째, 또 다른 흥미로운 추후 연구 방향은 발달 과정에서 초기 사회도덕적 기대가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공정성, 위해 금지,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살펴본 내집단 원리와 같은 인간의 문화보편적인 도덕 원리들은 각 문화와 개인 별로 각기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지게 되어 인류의 다양한 도덕적 지도를 그리고 된다(Graham et al., 2013). 예를 들어, 공정성과 내집단 원리는 서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보다 내집단 원리를 공정성 원리보다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차 또는 개인차가 발달 시기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김은영, 송현주, 2016)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영유아기 및 아동기의 내집단 원리에 대한 발달 연구는 인간의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증거와 더불어 서구 연구 위주의 기존 연구에 문화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영, & 송현주 (2016). 만 5-6 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101-116.
- 김혜리, 정명숙, 손정우, 박 민, 엄진섭, 문은옥, 천영운, 최현숙, 이수미. (2013).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공감 능력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55-275.

- 이미영, 장은진 (2015).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15-140.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illargeon, R., Scott, R. M., He, Z., Sloane, S., Setoh, P., Jin, K., Wu, D., & Bian, L. (2015). Psychological and sociomoral reasoning in infancy. In M. Mikulincer, P. R. Shaver (Eds), E. Borgida, & J. A. Bargh (Assoc. Eds.),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 Attitudes and social cognition* (pp. 79-15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lliet, D., Wu, J., & De Dreu, C. K. (2014). Ingroup favoritism in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 1556-1581.
- Barragan, R. C., & Dweck, C. S. (2014). Rethinking natural altruism: Simple reciprocal interactions trigger children's benevol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 17071-17074.
- Bian, L., Sloane, S., & Baillargeon, R. (2018). Infants expect ingroup support to override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 2705-271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 429-444.
- Carpenter, M., Uebel, J., & Tomasello, M. (2013). Being mimicked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18-month-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84, 1511-1518.
- Cikara, M., Bruneau, E. G., & Saxe, R. R. (2011). Us and them: Intergroup failures of empath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 149-153.
- Cirelli, L. K., Einarson, K. M., & Trainor, L. J. (2014). Interpersonal synchrony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infants. *Developmental Science*, 17, 1003-1011.
- Cosmides, L., & Tooby, J. (2013). Evolutionary psychology: New perspectives on cognition and motiv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201-229.
- Dovidio, J. F., Johnson, J. D., Gaertner, S. L., Pearson, A. R., Saguy, T., & Ashburn-Nardo, L. (2010). Empathy and intergroup relations. In M. Mikulincer, & Shaver, P. R. (Eds.), *Prosocial motives, emotions, and behavior: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pp. 393-408).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unham, Y., Baron, A. S., & Carey, S. (2011). Consequences of "minimal" group affiliation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 793-811.
- Dykas, M. J., & Cassidy, J. (2011). Attachment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across the life spa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37, 19-46.

- Fehr, E., Bernhard, H., & Rockenbach, B. (2008). Egalitarianism in young children. *Nature*, *454*, 1079-1083.
- Geraci, A., & Surian, L. (2011). The developmental roots of fairness: Infants' reactions to equal and unequal distributions of resources. *Developmental Science*, *14*, 1012-1020.
- Graham, J., Haidt, J., Koleva, S., Motyl, M., Iyer, R., Wojcik, S. P., & Ditto, P. H. (2013).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7, pp. 55-130). Academic Press.
- Gramzow, R. H., & Gaertner, L. (2005). Self-esteem and favoritism toward novel in-groups: the self as an evaluative ba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801-815.
- Hamlin, J. K. (2014). Context-dependent social evaluation in 4.5-month-old human infants: the role of domain-general versus domain-specific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evalu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5*, 614.
- Hamlin, J. K., Wynn, K., & Bloom, P. (2007). Social evaluation by preverbal infants. *Nature*, *450*, 557-559.
- Hamlin, J. K., Wynn, K., Bloom, P., & Mahajan, N. (2011). How infants and toddlers react to antisocial othe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 19931-19936.
- Hirschfeld, L. A. (2001). On a folk theory of society: Children, evolution, and mental representations of social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107-117.
- Hogg, M. A. (2003). Social identity.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The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462-479). New York: Guilford.
- Johnson, S. C., Dweck, C. S., & Chen, F. S. (2007). Evidence for infants'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Psychological Science*, *18*, 501-502.
- Johnson, S. C., Dweck, C. S., Chen, F. S., Stern, H. L., Ok, S. J., & Barth, M. (2010). At the intersection of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n infancy. *Cognitive Science*, *34*, 807-825.
- Jin, K., & Baillargeon, R. (2017). Infants possess an abstract expectation of ingroup suppor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 8199-8204.
- Jin, K., Houston, J. L., Baillargeon, R., Groh, A. M., & Roisman, G. I. (2018). Young infants expect an unfamiliar adult to comfort a crying baby: Evidence from a standard violation-of-expectation task and a novel infant-triggered-video task. *Cognitive Psychology*, *102*, 1-20.
- Killen, M., & Cooley, S. (2014). Morality, exclusion, & prejudice. In M. Killen & J.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2nd ed., pp. 340-360).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Killen, M., Rutland, A., Abrams, D., Mulvey, K. L., & Hitti, A. (2013). Development of intra and intergroup judgments in the context of moral and social conventional norms. *Child Development*, *84*, 1063-1080.
- Kinzler, K. D., Dupoux, E., & Spelke, E. S. (2007). The native language of social

- cogni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 12577-12580.
- Kinzler, K. D., Dupoux, E., & Spelke, E. S. (2012). 'Native' objects and collaborators: Infants' object choices and acts of giving reflect favor for native over foreign speaker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3, 67-81.
- Kotovsky, L., & Baillargeon, R. (1994). Calibration-based reasoning about collision events in 11-month-old infants. *Cognition*, 51, 107-129.
- Kotovsky, L., & Baillargeon, R. (1998). The development of calibration-based reasoning about collision events in young infants. *Cognition*, 67, 311-351.
- Levine, M., Prosser, A., Evans, D., & Reicher, S. (2005). Identity and emergency intervention: How social group membership and inclusiveness of group boundaries shape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443-453.
- Molenberghs, P. (2013). The neuroscience of in-group bia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7, 1530-1536.
- Olson, K. R., & Spelke, E. S. (2008). Foundations of coopera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108, 222-231.
- Patterson, M. M., & Bigler, R. S. (2006). Preschool children's attention to environmental messages about groups: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origins of intergroup bias. *Child Development*, 77, 847-860.
- Plötner, M., Over, H., Carpenter, M., & Tomasello, M. (2015). The effects of collaboration and minimal-group membership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liking, affiliation, and trus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39, 161-173.
- Rai, T. S., & Fiske, A. P. (2011). Moral psychology is relationship regulation: moral motives for unity, hierarchy,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Psychological Review*, 118, 57-75.
- Renno, M. P., & Shutts, K. (2015). Children's social category-based giving and its correlates: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51, 533-543.
- Rhodes, M. (2012). Naïve theories of social groups. *Child Development*, 83, 1900-1916.
- Rhodes, M., & Chalik, L. (2013). Social categories as markers of intrinsic interpersonal oblig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4, 999-1006.
- Richter, N., Over, H., & Dunham, Y. (2016). The effects of minimal group membership on young preschoolers' social preferences, estimates of similarity, and behavioral attribution. *Collabra*, 2, 1-8.
- Schmidt, M. F., & Sommerville, J. A. (2011). Fairness expectations and altruistic sharing in 15-month-old human infants. *PloS one*, 6, e23223.
- Shutts, K., Kinzler, K. D., McKee, C. B., & Spelke, E. S. (2009). Social information guides infants' selection of food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0, 1-17.
- Shweder, R. A., Much, N. C., Mahapatra, M., & Park, L. (1997). The "big three" of morality (autonomy, community, and divinity), and the "big three" explanations of suffering. In A. Brandt & P. Rozin (Eds.), *Morality and health*

- (pp. 119-169). New York: Routledge.
- Sloane, S., Baillargeon, R., & Premack, D. (2012). Do infants have a sense of fairness? *Psychological Science, 23*, 196-204.
- Spokes, A. C., & Spelke, E. S. (2017). The cradle of social knowledge: infants' reasoning about caregiving and affiliation. *Cognition, 159*, 102-116.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8.
- Tajfel, H., & Turner, J. C. (1986).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 Warneken, F., & Tomasello, M. (2006). Altruistic helping in human infants and young chimpanzees. *Science, 311*, 1301-1303.
- Yamagishi, T., & Mifune, N. (2009). Social exchange and solidarity: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0*, 229-237.
- 1차원고접수 : 2018.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8. 18.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8.

Early sociomoral reasoning: Infants' sensitivity to ingroup principle

Kyong-sun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One pervasive facet of human interactions is the tendency to favor ingroups over outgroups. What are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ingroup favoritism? Among several accounts proposed to answer this ques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olds that ingroup favoritism reflects in part an abstract and early-emerging sociomoral expectation of ingroup support. This paper reviews the key findings supporting this view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Key words : *infant cognition, sociomoral reasoning, morality, ingroup favoritism, ingroup principle*